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4, 예레미야 30-33, 위로의 책, 1부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예레미야 30-33장, 위로의 책, 회복의 약속 24회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끔찍한 심판 이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던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어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심판과 예레미야 사역의 전복, 파괴, 뿌리 뽑기,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조하고 널리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 뜻대로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인 26장부터 45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책의 매우 실망스럽고 우울한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모든 혼란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문화와 사회, 그들이 처했던 위기를 생각해보면 도덕적 타락과 타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자체의 영적 상태에 비추어 우리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도덕적 붕괴와 죄와 불의, 그리고 유다에 있었던 모든 일들로 특징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선지자들이 회복과 구원도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심판과 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관해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니 헤이즈(Danny Hayes)와 스콧 듀발(Scott Duval)이 그들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에서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네 가지 언약적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둘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디오에서 살펴볼 메시지의 네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모자이크 구절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일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어 그 언약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파괴적인 심판이 있는 후에,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가 그분이 의도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이루신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에 있는 판단에 그토록 초점을 맞춘 이 책에 실제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26-45장에는 유다가 여호와를 떠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심판을 받은 우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섹션 중간에도 희망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징계해야 할 때조차도, 그들을 가족에게서 내쫓을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훨씬 더 크게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는 것은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회복에 대한 강조점은 분명히 이 책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여호와께 불충실한 아내로 비난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갖고 계신 희망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돌아올 때, 예레미야 3장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면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마음에 떠오르지도, 기억되지도, 그리워지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앞으로 모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연합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북방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함께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추방될 필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더 깊고 충만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언약궤와 지성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더 깊은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희망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유다가 가졌던 열악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장에는 불순종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온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윗 계열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끝내셨습니다.

23장에는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며 흠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 가계의 모든 왕들이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수를 했습니다. 요시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두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미래의 지도자들로 교체하여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목양하실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갖춘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는 자들 위에 내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리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여호와와 우리의 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현재의 모든 심판은 모두 역전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30장에서 33장까지의 주요 초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을 읽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선지자의 이 특별한 말씀은 별도의 두루마리였으며 강조를 위해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갖고 계시다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강조하기 위해 분리된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선지서의 실제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종종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와서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희망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 원래의 심판의 말씀을 무디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선지자에게 확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의 문제는 전체 자료 중에서 구원의 말씀이 없는 예언서가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통렬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모스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와의 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암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서 도망치다가 곰과 마주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곰을 피해 집에 들어가 벽에 기대어 쉬면 뱀이 벽에서 나와 손을 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심판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을 묘사합니다. 국민의 10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남은 민족 곧 그 나라는 포식자의 입에서 찢겨 나온 어린 양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귀 일부, 꼬리 일부, 다리 일부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마지막에는 심판의 메시지인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때, 언덕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축복과 기쁨과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로지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예언서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30장에서 33장까지에서 강조됩니다. 이 부분의 시작과 끝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있고, 30장부터 33장에도 몇 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BE.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30장 3절의 시작 부분을 보고, 33장 26절의 끝부분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산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실제로 위로의 책에 대한 포함을 제공합니다.

그 표현은 30장 18절, 31장 23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리라'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샤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슈브라는 단어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명하셨고, 그들은 거듭거듭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분이 되실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며, 정확히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예언서에서,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이것이 당신이 선지자들을 읽고 더 익숙해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두 가지 주요 장르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구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오라클. 좋아요, 여기에 그것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협하고 절망적이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입니다.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박하고 위협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여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에서 중요한 장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신탁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일부이자 그 안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신탁이 현재 상황과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을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배달할 예정이다. 나는 당신을 이것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 주님, 왜 자고 계십니까?라고 자주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개입할 예정인가요? 구원의 신탁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서에서 구원의 신탁, 즉 두려움 없는 약속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사야 7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아하스는 그에 대해 조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유다의 역대 최악의 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내 말은, 역대 다윗 왕조의 최악의 대표자 중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시대에 유다는 시로-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구원의 신탁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은 나가서 세탁장 큰길 가에 있는 윗못을 깎아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적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물 공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조심하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그루터기니 연기 나는 그루터기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두 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 화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연기가 나는 장작 두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쳐들어오는 르잔과 시리아와 아말리아의 아들 두 왕의 맹렬한 분노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당신을 대적하여 악한 일을 꾀하고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신탁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슬픈 것은 아하스 왕이 마음이 악하여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그 결과 유다에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구원의 신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앗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구원의 신탁을 전합니다. 37장 5절.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청년들이 나를 모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선지자는 앗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7절, 보라 내가 그 속에 영을 넣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나는 너를 침략한 왕을 처리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 주겠어.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의 차이점은 히스기야가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 즉 예레미야가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적절한 구절입니다.

이사야가 포로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약속 때문에 모든 선지자의 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구원의 신탁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묘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구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희 구원자임이니라 괜찮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겪든, 물을 통과하든 불 가운데로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이며, 그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포로들에게 닥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처럼 약속하지 않고 이 두려움에 반응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0-33장에서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구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예언인 약속입니다. 30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0절과 11절에서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백성에게 본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포로들에게 돌아온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하지마.

진정하다. 오 나의 종 야곱아. 괜찮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이유는 그분이 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값없는 은혜로 그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네 자손이 포로 된 땅에서 돌아와서 평안과 평안을 누리리니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흠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니와 너희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만 멸하리라.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적들에 의해 억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야샤(Yasha)는 구약성서에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적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신탁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선지자가 30장 12~17절에서 이 구원의 신탁을 확장하면서 계속됩니다. 이 구원 신탁의 초반부에서 일어날 일은 유다가 현재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광범위하고 상세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포로생활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느니라. 관찮은? 당신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당신의 상처는 심각합니다. 당신의 뜻을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당신을 위한 치료도 없습니다.

이것은 책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폭탄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의 연인들은 모두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적의 타격을 주고 무자비한 적의 형벌을 가했기 때문이다. 네 죄가 크므로 네 죄가 극심하다. 왜 상처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네 죄가 심하고 네 죄가 심하므로 네 고통이 고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전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약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은 실제로 망치가 떨어질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라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 연설을 살펴본 것처럼

종종 심판의 선고, 즉 하나님께서 가실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서 15절에 비추어 볼 때 유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죄악이 극심하고 죄악이 크도다. 내가 네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삼키는 자는 다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대적은 다 포로로 잡혀가리라 너를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다 내가 약탈을 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버림받은 자들이라 일컬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온입니다. 그것은 치유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원수들을 멸할 것이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리라.

팀 켈러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비논리적인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예라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구원의 신탁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구속하시며 구출하시고 구출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 변화의 결과로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구원의 신탁의 전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또 다른 주요 구원 장르는 구원 묘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묘사란 역시 희망의 메시지이자 약속입니다. 때로 구원의 신탁과 구원의 묘사 사이의 차이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구원의 묘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미래의 구원 시대에 존재할 조건에 대한 시적 묘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너무나 자주, 매우 과장되고, 시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놀라운 번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덕에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의 시대에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이러한 과장되고 과장된 시적인 묘사가 바로 구원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이상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글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왕국을 고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회복과 구원의 시간을 고대하고 있으며 생명과 축복,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아름답고 시적인 묘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위해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언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송아지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가리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송아지, 사자, 표범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의 평화로운 환경에서 표범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아이는 코브라 구멍 위에서 놀기 때문에 물리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젖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그들의 절대적인 안전이 되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적 묘사는 미래의 왕국에 존재할 절대적인 평화와 조화의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의 왕국을 사용합니다. 자, 이 언어는 문자적인가, 아니면 비유적인가? 글썄요,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저주와 사망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정치적 영역, 인간의 영역, 자연의 영역. 이것은 대단한 확장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또 있습니다. 미래의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이사야 65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이니라.

그리고 다시,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왕국입니까? 선지자들은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왕국을 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닐 것이라 도리어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그 백성을 기쁨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상심과 재앙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예루살렘은 다시 기쁨과 축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고통에 찬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그 땅에는 날 수가 많지 못한 어린아이와 수한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청년은 백 세에 죽고 죄인은 백 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금이 새천년인지에 대한 질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왕국인가?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의 조건과 저주의 영향이 미래의 왕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사람이 백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로 여겨질 정도로 죽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제 예언서에는 이 미래의 왕국에서 죽음이 완전히 소멸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서로 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항상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저주의 조건과 효과가 역전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건축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고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날은 나무의 날과 같을 것이요, 내가 택한 자는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을 오랫동안 누리리라. 그러므로 포로 생활 중에 적군이 들어와서 그 땅을 침략하고 그들의 성읍을 파괴하고 빼앗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그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가 존재하는 한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들은 장수하고,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미래 왕국의 평화와 번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광범위한 약속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세 번의 포로 물결을 거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위로서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겪었던 이런 종류의 파괴적인 심판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33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14절에는 구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11-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크게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 떼에게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리로다. 그들의 삶은 물 댄 동산과 같아서 더 이상 시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남자들과 늙은이들이 즐거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기쁘게 하리라.

내가 제사장의 영혼을 풍성히 기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회복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이는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위 공격, 기근, 역병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위 기간 동안 사마리아 왕하의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은 다섯 세겔로 비둘기 똥 사분의 일 리터를 받았습니다. 기근과 포위의 끔찍한 상황, 이제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30-33장에서 유배 생활의 특징이 울음과 애도, 고통. 그것은 격렬한 축하 행사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탬버린을 불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우리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읽은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9장에서 죽음이 창밖으로 기어오르고 있으며 유다 땅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직업적으로 애도하는 여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 창을 통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슬픔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입니다. 오, 내 머리가 눈물의 샘이 되어 그들이 겪고 있는 일로 인해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울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에서 행한 표징 행위 중 하나 또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치나 잔치를 벌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복 중에 예레미야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모든 곳이 축하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박탈과 낙담, 그 슬픔,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로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머니는 자기 백성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과 기쁨과 경축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3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구원의 묘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중건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하는 줄은 가렙 언덕까지 곧게 뻗어 고아로 향하게 하라. 시체가 있는 골짜기 전체와 재와 기드론 시냇가까지 동쪽 말문 모퉁이까지의 모든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될 것이니라

더 이상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뽑고 허무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특징짓는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곧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사찰 경내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미래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회복에 관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고,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에스겔 40~48장은 미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으며 성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5장에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찾아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힌놈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는 토벳과 이교 신들을 위한 성소가 있었고 어린이 희생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염된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곳도 결국은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과 축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려는 네 번째 약속은, 궁극적으로 열방도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의 예언과 구원의 묘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에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의 줄거리, 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책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선형적 진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비록 책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도, 연대순으로 된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패널링과 내러티브 병렬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혼란스러운 구조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레미야서가 기본적으로 특정 줄거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메시지와 설교와 신탁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문제와 해결책이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메시지에 나오는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2장에 사용된 형상, 즉 주요 형상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불성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매춘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주님께 거둬들여 간음했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에 묘사된 또 다른 관계는 그들이 불충실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줄거리는 이러한 무작위적인 파괴에 관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리시며 와, 이 사람들이 언약을 남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벌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과거의 죄를 정화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 부분에는 불성실한 아내와 불성실한 아들이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그 과정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30-3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과 매춘을 행한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그들은 더위 속에 있는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3장에서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꽤 충격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수치를 나라 앞에 드러내실 것이며, 불성실한 아내를 육체적으로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31, 21~22절에 일어나는 일은 그 결혼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이 결혼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불충실한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 심판을 내려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며 이 결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1장 21절과 22절에서 이에 대한 암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이정표로 삼고 이정표를 삼으십시오. 당신이 갔던 길, 고속도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상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표시를 세워 두세요. 그리고 옛날 광고를 위해 길가에 항상 붙어 있던 버마 면도기 표지판이 생각납니다. 그 표징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제 파렴치한 창녀였던 이스라엘 여자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1장, 나의 신실한 성읍은 음녀가 되어 불의와 유행과 여호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찼느니라. 하지만 책이 끝날 무렵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게 되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그녀와 재혼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녀를 이 믿음 없는 창녀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변화시켜 다시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오 믿음 없는 딸아, 네가 언제까지 망설이겠느냐? 좋아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전반에 걸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나약한 포로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녀를 사로잡은 자들보다 더 강해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전사로 만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에워싸는다는 개념이 여성이 남성을 껴안는다는 개념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성실한 아내가 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될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성적 이미지에 괴로워하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이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묘사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녀와 함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겪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중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미래에 자녀를 키우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반부에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 없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3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말을 들었으니 그 이름은 전형적으로 북쪽 왕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이 슬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훈련받지 않은 송아지처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려와. 나를 돌려보내시고 나를 회복시키사 내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돌아선 후에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뒤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부끄러웠으니 이는 젊음의 치욕을 당하였음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가요? 내가 그를 비난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그를 갈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눈물의 살아있는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것의 일부인 분노의 맹렬함을 단순히 표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의 반역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마침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모든 재앙과 혼돈, 그리고 때때로 그 혼돈과 그것이 결합된 방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책에서도 예레미야가 이 책을 구성했다는 아이디어를 거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배의 모든 폐허와 황폐함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예레미야 시대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말한 내용 중 일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모두 말한 이력이 있습니다. 2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와 우상숭배를 직면하실 때(23절),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2장 35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결백 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14장에서는 주님께 두 가지 죄를 고백하는데 그 말이 꽤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이 말로만 되고 실제적인 돌이킬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8장 12절에서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 갔는데, 진흙은 여전히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 표징 행위가 끝나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르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에브라임이 훈련받지 않은 송아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역 중 마지막 실제 연대기적 사건에서 책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고 서원하며 이교 신들에게 제물을 이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 걸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2장부터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나는 44장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항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 곧 31장에서는 회개하는 자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이 없는 사회에 대한 심판의 경고 때문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시기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책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진술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우상에게서 돌이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돌이킬 때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궁극적으로 부어주실 긍휼을 놀랍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예레미야 30-33장, 위로의 책, 회복의 약속 24회입니다.